인마일체

소방관\_박준호\_충북

말(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드넓은 초원에서 느릿느릿 걸어 다니며 한가롭게 풀을 뜯는 갈색말 무리들? 무거운 갑주와 투구를 착용하고 일제히 흑마 위에 오르는 병사들? 새하얀 백마에 올라타 공주에게 청혼하러 가는 왕자의 모습? 상상하면 할수록 전혀 다른 각양각색의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흘러나온다. 쟁기를 끌며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짓는 친구로, 아비규환의 전쟁을 함께하는 동료로, 여행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말은 참으로 영겁의 세월을 인간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온 듯하다. 심지어 요즘은 인간의 스트레스 해소와 놀이를 위해서까지 자신의 등을 빌려준다.

말은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의 헌신을 아무 내색 없이 묵묵히 하고 있다.

말은 무엇인가? 태초에는 평원을 활보하며 한가롭게 풀을 뜯었다. 그러다 인간에게 길들여지면서 쟁기를 들고 밭을 갈게 되었다. 몇천년 후에는 아비규환의 전쟁을 함께하는 동료나 여행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심지어 요즘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 인간에게 헌신한다.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영겁의 세월동안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말은 드넓은 초원에서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한가롭게 풀을 뜯던 야생마에서 부터 쟁기를 끌며 인간과 함께 농사를 짓는 친구로, 아비규환의 전쟁을 함께하는 동료로, 여행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왔다. 참으로 영겁의 세월동안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의 헌신을 묵묵히 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인간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을 위해서까지도 자신의 등을 빌려준다.

말이 보고싶어 정신없이 내달렸다. 눈앞에 말이 아른아른 나타난다. 나의 심장은 그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강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그의 집문 앞에서 나의 모든 감각은 화살을 쏘기 전 활시위처럼 팽팽하다. 문이 열리고 나의 모든 감각은 난생처음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앞으로 빠르게 날아간다. 그를 향한 응축된 손길의 화살이 목덜미에 닿는다. 그는 정말 화살이라도 맞은건지 연신 목덜미를 흔들대며 입으로 내 손을 친다. 그도 내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의 목에 감겨진 목줄을 잡고 승마장 앞으로 나온다. 막 결혼한 부부가 첫날밤을 치루기전인거마냥 나의 심장은 파르르 떨며 성난 황소처럼 이리저리 쿵쾅댄다. 두려우면서도 어서 빨리 올라가고 싶은 그의 우람한 등. 기대를 한아름 품고 안장에 한쪽 발을 건채로 고삐와 갈기를 강하게 움켜잡는다. 나도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멋있게 말을 타고 폭풍질주 할 수 있을까? 그의 등을 타고 적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군이 될 수 있을까? 그의 등에 오르는 순간 그와 함께 할 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찰나에 흘러간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내 몸뚱아리는 제몸을 못 가누는 폭풍 속 난파선처럼 하염없이 세차게 흔들린다.

“어허! 박선생 일어서서 허벅지 힘주고, 어깨 힘 빼고, 손 가운데 두고. 박선생! 뭐하나 자네 지금? 힘 빼라 그랬잖아 박선생! 말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지금 자네는 말 따로 자네 따로 타고 있어. 그렇게 말 타면 말 허리 다 망가진다네.”

도대체 그놈의 힘을 어떻게 빼라는 건가? 중심도 못 잡겠고, 그의 등을 어떻게 일어서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와 함께 대자연의 품속에 흠뻑 빠지려 했건만, 현실은 원장님의 잔소리에 발끝부터 턱밑까지 풍덩 잠겨버리고 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힘을 빼면서 힘을 줄 수 있는건지 당최 알 수가 없다. 허벅지 안쪽의 근육들은 타는 듯한 비명을 지르고, 이내 몸 구석구석이 땀범벅이 돼버리고 만다. 힘겨운 첫 승마를 마치고 내려온 땅 밑이 어찌나 반갑던지. 다시 두 다리로 걸으니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까지 참아놨던 오줌을 갈기듯 시원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의 등에 오르면 으레 땀방울과 함께 허벅지가 터져나갔다. 도대체 왜 그의 등에 타기만 하면 중심도 못 잡고 힘만 잔뜩 드는 것인가! 어찌해야 그와 함께 일체가 될 수 있단말인가. 그를 타고 오는날 밤이면 항상 악몽을 꾸었다. 몸은 말인데 얼굴은 원장님인 말이 나를 태우고 이리저리 쏘다니며 잔소리를 무진장 퍼붓는 꿈이었다.

그렇게 골머리를 욱신거리는 스트레스를 앓다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승마장에 출석한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맑았다. 시원한 산들바람도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좋은 날씨 탓이었는지 내님의 등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앉게 되었다. 허리는 곧게 펴졌다. 고삐를 잡은 손도 어깨도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발등으로 내님의 배를 따스한 날씨처럼 포근하게 쓰다듬었다. 나의 모든 행동이 내님의 품속에서 자연스레 시작되었다.

“가자 주몽아! 으랴~!”

단호하고 확신에 찬 추임새와 함께 부드럽게 내님의 배를 발로 찼다. 내님은 천천히 속도를 높여 내달리기 시작하고 내님의 등과 내 엉덩이는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에게 꼭 맞물려 허리를 튕기며 찌그덕 찌그덕 위아래로 요동쳤다.

“박선생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야! 그래 이제야 말을 제대로 타네. 거봐 내가 뭐랬어. 말에 몸을 맡기라고 했잖아. 그것이 바로 인마일체의 경지야. 박선생. 말이 자네인지 자네가 말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지 말야.”

말과 함께 인마일체라는 경지에 들어선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고뇌도, 욕구도, 고통도 사라지고 환희의 무념무상에 빠진다. 그저 내 몸도 활처럼 휘어져 내님의 폭발적인 율동에 리듬을 맞출 뿐이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온갖 슬픈 일들이 내님과 나의 격정적인 사랑 속에서 자연스레 치유된다. 그렇게 첫 인마일체를 경험하고 땅에 두 발을 디딘 순간 얼마나 내님의 등이 아쉽던지…… 하루종일 내님과 함께 있으라고 해도, 더 이상 땅 밑에 내려올 수 없다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첫 인마일체를 마치고 내님을 그의 집까지 데려갔다. 그날따라 왠지 내님의 눈가엔 눈물이 흥건히 고인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어주며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곤 천천히 내님의 시선에서 나는 멀어졌다. 소낙구름이 저 멀리서 보인다. 을씨년스러운 차에 털썩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도로로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소나기가 장대처럼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차 속까지 들어오는지 얼굴에도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필 그날은 마지막으로 내님의 등을 타는 날이었다.